

# 일본훈춘동향회

우리는 중국 훈춘사람입니다. 훈춘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국타향에서 살면서 고향이 그리고 고향 생각이 자주 나는건 누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 6월 몇명이 훈춘사람들로 이루어진 모임, 같은 고향이라는 모임자체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훈춘동향회를 설립하여 더 많은 고향분들을 찾게되었습니다. 현재 위챗그룹에는 164명이 회원이 있으며 가정주부, 직장인, 자영업, 기술자, 교수, 기자, 등 일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바베큐, 송년회, 고향에 마스크기증 등 활동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활동들을 조직하여 회원들 간에 서로 료해하고 서로 도울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훈춘시와 일본의 上越市는 1996년에 맺어진 우호도시입니다. 두 도시간에 경제발전과 문화협력에도 저의 일본훈춘동향회는 뉴대역할을 잘하여 고향의 발전에 저그마한 힘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